

# 고문(顧問) : 숙련(熟練)과 위엄(威嚴)



글 김상순  
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知識)과 풍부한 경험(經驗)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또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문(顧問)의 뜻을 적고 있다. 즉, 고문이라는 직업 혹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여름호에서 야구, 역도, 요리 등 여러 종류의 경기들을 다루며 ‘심판(審判)’을 이야기했는데, 가을호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경기를 하나 더 다루며 ‘고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바로 보디빌딩(body building)이다.

블라드 유딘(Vlad Yudin) 감독의 2013년작 영화 ‘제너레이션 아이언(Generation Iron)’은 다큐멘터리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근육남 타이틀인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기 위해, 수련을 쌓는 수많은 현실의 보디빌더들의 세계를 다룬다. 필 히스(Phil Heath), 카이 그린(Kai Greene), 브랜치 워렌(Branch Warren), 데니스 울프(Dennis Wolf), 빅터 마르티네즈(Victor Martinez), 히데타 야마기시(Hidetata Yamagishi), 로엘리 윈클라(Roelly Winklaar) 등등. 저마다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어야만 하는 사연들이 있다. 고수들의 리그에서는 심사위원들도 선수들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련의 방향도 장점을 부각시키는 편이 아니라, 약점을 없애는 편이 된다. 이 영화는 2012년의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실제 보디빌더의 각 스토리를 근접 촬영하여 다루고 있다.

반복이 거듭되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기량은 성장한다. 지겨울 정도의 반복, 반복.

운동경기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극명히 결과와 기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경향이 쌓이는 것은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컴퓨터 게임 화면에서의 경험치 게이지와는 달라, 길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묘사하기도 어렵다. 보통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쌓이는 과정을 볼 수 없다. 관중은 결과로써의 기량, 예컨대 경기결과나 경기기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수들의 경험치를 확인한다.

“보디빌딩은 스포츠이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하다. 삶의 방식이자 예술이다. 몸을 조각한다. 완벽히 균형 잡힌 근육의 상태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시각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선수의 체력 증진을 관중은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체격의 증진은 단박에 관중과 심판의 눈에 띈다. 완벽하게 발달된 근육의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후에 열릴 경기장에 도착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즉, 이미 이겨놓고 경기장에 들어선다.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前)에는 스포츠(sports)이고, 입장한 후(後)에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된다.

소송 절차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절차다. 형사소송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희화화되고, 배심재판제도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 진실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디가에는 있을 정의(正義)를 위하여, 보편타당한 자연법(自然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해부학 교과서에는 근육의 형태가 신체 부위별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근육의 적절한 크기가 적혀있지는 않다. 이는 크기의 문제는 아니다. 균형의 문제이다.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시각적(視覺的) 심미(審美)의 영역이다. 정의와 자연법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존재하듯, 보디빌딩 선수의 근육들은 극한의 수련으로 가상 완벽체를 향해 한없이 펌핑(pumping)된다.

반복되는 꾸준한 수련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근육에 관한 해박한 지식, 식품영양에 관



2013년 개봉한 영화 「제너레이션 아이언」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한 전문적 접근도 필수다. 단시일에 만들어지는 근육 갑옷이 아니다. 5년, 10년, 15년.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筋肉) 갑주(甲冑)의 크기와 밀도는 높아진다. 모양과 형태도 더욱 선명해지고 두드러진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반복은 무의미하다. 학식과 경험은 서로 긍정적 영향으로 병존적으로 성장한다. 그제야 숙련(熟練)은 돋보인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선수들은 자기 근육의 균형미의 정도를 척 보고 이미 안다. 이른바 셀프(self) 고문(顧問)이다.

영화 ‘제너레이션 아이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는, 선수들이 자신들이 멘토로 삼은 전직 챔피언들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었다. “이런 말 하게 되어 미안하네만, 지금의 근육 상태로는 지역 대회라면 몰라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어렵어 보이는군.” 위엄 있는 멘토의 조언 한마디에 선수는 이를 신뢰하고 승복하여, 이를 악물고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 완벽한 영양소 밸런스를 위하여, 딱딱한 닭가슴살을 기꺼이 씹으며 묵묵히 바벨을 들고 자신의 근육의 한계와 싸우는, 그들은 도심 속의 구도자(求道者)들이자 그의 조언자(助言者)들이다.

법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법규 또는 경험법칙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시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를 ‘감정(鑑定)’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러한 보고를 하는 제3자를 ‘감정인’이라 부른다. 감정인은 대체성이 있고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다는 점에서 증인(證人)과 구별된다. 감정의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된다. 쉽게 말하자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관(法官)의 고문(顧問)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을 통하여 법관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게 된다.

특정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다른 기능이 발달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결핍을 보충하여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정의감 불타는 건전한 영혼만큼이나 건강한 신체는, 우리가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관이다. 그런데 그 근육(筋肉) 갑주(甲冑)의 주인공이 신체기능에 결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2003년 봄 개봉된 영화 ‘데어데블(daredevil)’의 주인공인 슈퍼히어로는 시각장애인이다.

배우 벤 애플렉(Ben Affleck)이 주연을 맡은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 주인공 맷 머독(Matt Murdock)의 직업은 변호사다. 어린 시절 방사능 폐기물에 눈을 다쳐 맹인이 되었다. 낮에는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형사사건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고, 밤에는 자신의 지역 ‘헬스 키친’의 정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무기삼아 휘두르며 동분서주한다. 영화의 마지막에 악당 두목 ‘킹핀(Kingpin)’은 데어데블의 손에 쓰러진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였고,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스토리다.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설정은 신선하다.

주인공은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청각이 극한으로 발달하였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 죄책감 가득한 심장박동 소리도 감지해낸다. 박쥐가 사용하는 초음파처럼 소리로 주변 환경을 재구성해내므로, 눈이 보이지 않아도 활약을 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신체반응 등의 능력 또한 정상인보다 훨씬 뛰어나서, 격투를 벌이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 2015년 TV 시리즈로도 제작된다는 데어데블은 개봉 이후의 감독판(director's cut)에서는 좀 더 법정의 풍경과 사건의 진행을 다루면서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장면들을 추가하고 있다.

극 중 잠깐의 파티 장면에서, 악당 두목 킹핀의 부하가 주인공 매트 머독의 동업자 변호사에게 '우리 회사에는 이미 고문 변호사가 널려있으므로 너희들에게까지 차례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온다. 배심원 앞에서의 멋진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형사(刑事) 법정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회사(會社)의 고문변호사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덜 어울리기는 했다. 분쟁의 단계가 소송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흔히 고문변호사라 부른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로, 상법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간 고문(顧問)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는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여러 부분에서 부합한다.

상법 제542조의 13은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준법지원인(遵法支援人)'이란 준법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선임된 자이다.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



2003년 개봉한 영화 「데어데블」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정을 말한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통제기준’이 2012. 4. 제정되었다. 2014. 1. 1.부터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도록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선과 악이 혼재한 사회에서의 준법지원인 역할을 코믹스에서는 ‘슈퍼히어로’들이 맡고 있는 셈이다.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들. 그중에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를 다룬 영화, 데어데블. 이 정도의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카리스마(charisma)가 있는 변호사라면 기꺼이 회사에서 적극 영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속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숙련도를 높임과 아울러 한 가지 요소가 더 갖추어져야 고문(顧問)에 대한 신뢰가 진득하게 배어날 수 있다. 이른바 카리스마(charisma) 혹은 권위라 불리는, 상대방을 심복시키는 능력이나 자질이 필요하다. 즉,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위엄(威嚴)’이 있어야 한다.



2003년 개봉한 영화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 포스터  
(출처 : 다음 영화[movie.daum.net])

거꾸로 생각해보면 된다. 위엄 없는 판사의 소송지휘, 위엄 없는 검사가 진행되는 수사절차, 위엄 없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엄숙하고 경건한 언행은 절로 존경과 신뢰를 부르게 마련이다. 관객을 압도하는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라 한다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가. 위엄 있는 주연배우의 행동거지와 대사는 관객들을 영화에 몰입시키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게 만든다.

영화 ‘유인원의 행성(Planet of the Apes)’. 이렇게 원제목을 직역해서 부르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국내에는 ‘혹성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다. 혹성탈출 시리즈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에 5편 정도가 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팀 버튼 감독이 리메이크 하였고, 이때까지는 유인원과 대립하는 인간이 주인공이었다. 2011년

과 2014년에 ‘혹성탈출 : 진화의 시작(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Dawn of the Planet of the Apes)’ 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가 순차 등장했다.

이 새로운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은 시저(Caesar)다. 앤디 서키스(Andy Serkis)라는 배우의 모션 캡처를 딴 유인원이 주인공이다. 앤디 서키스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의 역할을 맡아서 모션 캡처 분야의 획을 긋는 배우가 되었다. 영화가 끝난 이후의 엔딩 크레딧에서도 앤디 서키스는 등장배우의 첫머리에 등장한다. 시저의 짝 다문 입술, 완고해 보이는 눈매, 차분하지만 굵은 음색. 동료 유인원 무리를 통솔하는 ‘그’의 걸음걸이, 손짓에서도 힘이 느껴진다. 시저는 근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위엄 있는 캐릭터로 꼽혀도 손색이 없다. 아주 매력적이다.

발달하는 컴퓨터 그래픽은 어디가 실사인지 어디가 가상인지 구분을 어렵게 한다.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모니터와 브라운관에서 재현해내는 일은 이제 감독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엔지니어에 의한 컴퓨터 기술의 구현 능력에 좌우되게 되었다. 영화와 드라마의 구별기준을 단편으로 끝나느냐 여러 편이 연결되느냐로 따지자니, 근래에는 영화도 부제(副題)를 붙여서 여러 편으로 제작되기에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가 극장이냐 아니냐로 나누자니, 홈 시어터(home theater)가 등장한지 오래인데다가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로 스토리 위주로 영화 콘텐츠를 이동 중에 소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스튜디오를 벗어난 TV 드라마 시리즈의 제작방식이나 수년에 걸친 2, 3부작의 영화들의 개봉은,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어디 그뿐이라. 현실 같은 영화, 영화 같은 현실. 영화는 현실을 벗어나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대화에 길 수 있는 바라봐야 하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너무 많아진다. 나의 소중한 휴식 시간을 할애하여 어느 영화를 보아야 할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영화 선택에도 고문(顧問)이 필요한 시대다 싶다.